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 조성사업

국제 심포지엄

신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Symposium on Refugee Protection in the New Era and Civil Society

아시아 태평양 7 개국·지역 NGO 의 관점에서

보고서

2009 년 10 월



들어가는 말

2007 년 UNHCR (유엔난민기구) 통계에 의하면 세계 난민의 약 34% (382 만명) 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는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난민들은 구미지역의 각국으로 이주하거나 난민캠프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난민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난민인정건수는 몇십명규모에 지나지 않아, 매년 수천에서 수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미국, 호주, EU 각국과 비교해 대단히 적은 수의 난민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한일양국의 난민정책의 일련의 변화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예에 의해 인도적 배려에 의한 체류 자격의 도입, 취업 제한의 완화, 난민 지원 시설의 설치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제 3 국 정착」 제도에 의한 난민 수용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아시아 지역에 있어 큰 전진이며, 향후 난민보호를 위한 한일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호주는 지금까지 비호신청자를 인접국에 설치한 수용소에 격리해왔습니다만 2007 년의 정권교체 이후 이 정책이 폐지되는 등 난민수용정책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일련의 변화는 신시대의 도래를 상징하는 정치적 전환으로 시민사회도 이 신시대에 적합한 지원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의 물결이 밀려 드는 가운데 난민지원협회는 2009 년 6 월 13 일, 「아시아 태평양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서 국제 심포지엄 「신시대의 난민 보호와 시민사회: 7 개국·지역의 NGO 의 관점에서」을 도쿄에서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는 호주,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에서 난민 보호에 종사하는 전문가 16 명이 참가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 일, 홍콩의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어프로치의 의의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의 NGO 관계자는 난민 정착 지원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말레이시아·태국·홍콩의 NGO 관계자는 난민협약 미가입국에서의 시민사회의 난민지원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난민지원협회가 주최한 최대 규모의 행사였던 이번 심포지엄에는 200 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하고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어지는 등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 보고서는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 자료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가 난민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난민 보호의 발전에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후원해 주신 국제 교류 기금 일·미 센터 그리고 협찬을 해주신 일본 항공과 토요타 재단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 년 10 월 30 일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난민 지원 협회
사무국장 대행 이시이 히로아키

■ 차례

국제 심포지엄

「신시대의 난민 보호와 시민사회~아시아태평양 7 개국·지역의 NGO 의 시점에서~」 보고서

개요	1
강연자, 패널리스트, 모더레이터 약력	2
심포지엄 요지	6
내빈 인사	
요한 셀스	8

기조연설

「한국·일본·홍콩에 있어서의 난민 보호의 발전」	
황필규	9
아베 코우키	10
마크 다리	11

패널디스커션 I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협약 가입국에 있어서의 현상과 과제」	
타마라 도미셀	12
이시카와 에리	13
이호택	15
크리스틴 패트리	16
질의응답	17

패널디스커션 II

「아시아의 난민 보호의 새로운 도전」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21
루피노 세바	22
브라이언 바버	23
아담 저비노프로스	24
틴원씨	24
페트리스 프라워즈	25
질의응답	26

폐회사

혼마 히로시	29
--------	----

■ 심포지엄 개요

명칭 : 국제 심포지엄

「신시대의 난민보호와 시민사회 ~아시아태평양 7 개국・지역 NGO 의시점에서~」

일시 : 2009 년 6 월 13 일 (토) 10:30 ~ 16:30

장소 : 여성의 일과 미래관 4 층 홀

언어 : 일본어/영어 (동시통역)

참가자 : 201 명

주최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난민지원협회 (Japan Association for Refugees)

조성 :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 일미센터

협찬 : 일본항공

후원 : 토요타재단

프로그램

10:40-11:00 내빈인사

요한 셀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 주일사무소 대표

11:00-12:00 기조강연 「한국, 홍콩, 일본의 난민보호의 발전」

황필규

한국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아베 코우키

카나가와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마크 다리

반즈&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콩)

13:00-14:30 패널디스커션 I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난민협약 체결국의 현상과 과제

타마라 도미셀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위원회 정책디렉터

이시카와 에리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이호택

피난처 대표

크리스틴 패트리

국제구제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태국사무소
부대표

모데레이터 :

미즈노 다카아키

아사히신문사 논설위원

13:00-14:30 패널디스커션 II 아시아 지역의 난민보호의 새로운도전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테나가니타 프로그램 오피서 (말레이시아 NGO)

루피노 세바

방콕 난민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태국 NGO)

브라이언 바버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 사무국장

아담 저비노프로스

재 태국 미국대사관 동아시아 난민 조정관

틴원

재일버마시민노동조합 회장/버마난민

모데레이터 :

페트리스 프러워즈

하와이대학교 정치학부 준교수

16:20-16:30 폐회인사

혼마 히로시

호세이대학교 명예교수/난민지원협회 상임고문

사회 :

모리카와 히로미

일본복음루터교 사단 이사/사무국장 대행

반 메구미

난민지원협회 지원사업부 팀 리더/법적지원 담당

■ 패널리스트 및 모더레이터 약력



요한 셀스 Johan Cels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 (UNHCR) 주일사무소 대표
UNHCR 직원으로서 18 년 이상 업무 경험이 있고 홍콩, 이라크, 터키, 불가리아, 스위스, 에티오피아, 미국 등에서의 임무를 거쳐 2008 년 9 월 UNHCR 주일대표로 취임. 취임 전에는 뉴욕에서 평화와 안보 담당 상임 정책 고문으로서 수단, 차드,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한 분쟁후의 부흥계획과 평화 구축 전략. 노틀담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 취득



황필규 Pill Kyu Hwang

한국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전문분야는 이주자, 난민,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와 국제 인권법
서울 대학교 법학부, 국제공익법 박사과정 수료.
대한 변호사 협회 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 연대
위원회 멤버, 참가형 민주주의 국민연대 운영위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이주·정책 사회 센터 (COMPAS) 객원연구원 역임



아베 코우키 Koki Abe

카나가와 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1958 년 이즈오시마 태생.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법학 연구과 박사
후기 과정 수료.. 미국 버지니아 대학 법과대학원 LLM. 전공은 국제법,
국제인권법. NPO 법인 휴먼라이트 나우 이사장.
저서로 「저항하는 사상/평화를 만드는 힘」 (후마 서방 2008 년)
「국제인권의 지평」 (현대인문사 2003 년) 「인권의 국제화-국제
인권법의 도전(현대인문사 1998 년)」 등 다수



마크 다리 Mark Daly

반즈& 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콩)

1986 년 캐나다 켈거리 대학교 생물학부 졸업. 92 년 Osgoode Hall
법과 대학원 수료.. 이후 캐나다, 홍콩, 영국 등에서의 근무를 거쳐 홍콩
대학교에서 인권법 석사 취득. 95 년부터 홍콩의 팜베케&컴퍼니사에서
사법심사, 인신보호법, 베트남 난민등의 문제에 관여. 앰네스티
인터네셔널의 멤버로서 국제 법률 감시단에 참가한 경험이었다.



타마라 도미셀 Tamara Domicelj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위원회 정책 디렉터

뉴사우스웨일즈 난민센터의 디렉터로 4 년간 근무한 후 현직.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난민 리서치 센터에서 국제사회개발 석사취득. 이전에는 난민의 교육, 커뮤니티 개발 등에 종사한 후 「뉴사우스웨일즈 고문/정신적 외상 피해자 치료, 사회복귀 서비스 센터」에서 난민의 사회/심리적 정착 프로그램에 관여.



이시카와 에리 Eri Ishikawa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조지대학교 졸업 후, IT 출판사 등에 근무. 르완다의 내전을 계기로 난민문제에의 관심이 깊어져 난민지원협회 설립 준비단계부터 자원봉사로 관계한 후 직원이 되었다. 현재는 사무국장으로서 대외사업/개별 지원을 중심으로 조직의 총괄 및 일본 각지에서 난민 보호에 관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이민 정책 학회 이사.



이호택 Ho Taeg Lee

국제 난민 지원 기독 NGO 피난처 대표

1983 년 서울 대학교 법과 대학졸업, 85 년 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94 년 6 월부터 2008 년 6 월까지 NGO 회년선교회 외국인 상담소의 상담실장으로 근무. 99 년 6 월 피난처를 설립해 대표로 취임.



크리스틴 패트리 Christine Petrie

국제구제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태국사무소 부대표

난민 지원에 17 년 이상의 실무 경험. 현재, 태국·미얀마 국경의 난민 캠프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감독. 약 3 만명의 난민이 IRC 의 의료 프로그램, 건강 지원, 환경위생 서비스, 질병 예방 교육, 성 학대의 신속한 대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임상 간호사, 복지 서비스의 준학사 학위, 사회 봉사 관리 학사 학위를 취득.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는 미국 해병 대원.



미즈노 다카아키 Takaaki Mizuno

아사히신문사 논설위원

도쿄대학교,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원 졸업. 1982년, 아사히 신문사 입사. 하노이 특파원, 워싱턴 특파원, 뉴욕 지국장을 거쳐 2007년부터 논설위원. 저서, 논문 「베트남의 전후」(공저), Boat People Quandary (Japan Quarterly) 등.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Katrina J Maliamauv

테나가니타 (Tenaganita) 프로그램 오피서 (말레이시아 NGO)

미국 미네소타주 Bemidji 주립 대학교 심리학부 졸업. 테나가니타의 프로그램 오피서로서 말레이시아의 버마 난민의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정책제언, 교육,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루피노 세바 Rufino Seva

방콕 난민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1987년 필리핀·비콜 대학교 사회 복지 학부 졸업. 96년 필리핀 대학 교 사회복지지역개발 학부 사회 복지학 석사 취득. 필리핀 난민 이송 센터 사회복지개발국 근무 후, 97년 부터 UNV 스페셜리스트로서 UNHCR 태국 사무소에서 근무. 2005년부터 현직.



브라이언 바버 Brian Barbour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 사무국장

미국 애리조나 주립 대학 철학부 졸업. 일본의 니이가타에서 3년간 영어 및 음악을 가르친 후, 2년동안 नेपाल에서 커리큘럼 개발, 교원 교육, 도서관 개혁, 로마의 유엔 식량 농업 기구의 글로벌 교육 캠페인 등을 추진. Brooklyn 법과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 홍콩 근무 전에는 UNHCR 뉴욕 사무소에서 근무.



아담 저비노프로스 Adam Zerbinopoulos

재 태국 미국대사관 동아시아 난민조정관

미국 국무성 근무전에는 상하이에서 금융 서비스 회사와 반도체 메이커의 변호사로 근무. 현재, 태국, 방콕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동아시아 지역 담당의 난민 조정관.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출신. 텍사스 대학교 졸업.



틴윈 Tin Win

제일 버마 시민노동조합회장/ 버마난민

1954 년 버마 태생. 74 년 반군부 데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인권·민주주의 운동에 참여. 93 년, 아웅산 수지씨의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만다레이 지구 조사부원에 선출. 이후 저널리즘에 종사. 96 년, NLD 의 신민주적헌법작성 위원회의 멤버에 선출된 후 군사 정권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국외로 탈출. 99 년,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됨.



페트리스 프라워즈 Petrice Flowers

하와이대학교 정치학부 준교수

2002 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02 년에서 2004 년 도쿄대학 연구원 역임. 「Journal of Japanese Studies」에 「난민 보호 정책의 실패? :일본의 국내 기관, 국제기관, 시민사회의 관계」를 기고.. 저서로 「난민, 여성, 그리고 무기: 일본의 국제적 규범의 수용과 준수」(스탠포드 대학교 출판사)가 2009 년에 출판 예정.



혼마 히로시 Hiroshi Homma

호세이대학교 명예교수/ 난민지원협회 상임고문

교직에 종사하기 전에는 국립국회도서관 조사 및 입법 고사국 정치 행정 과장, 외국 방위 과장등을 역임. 그 후, 스루가다이 대학교수를 거쳐, 2008 년 3 월까지 호세이 대학 교수로 근무. 현재 난민지원협회 상임 고문, 호세이 대학 명예 교수, 스루가태국 대학 명예 교수. 도쿄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세계의 난민 문제를 생각한다」를 강의, 스루가태국 대학 법과 대학원에서는 「국제 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을

담당. 법학 박사.

(발언순서, 경칭생략)

■ 심포지엄 요지

2009 년 6 월 13 일, 난민지원협회는 국제 심포지엄, 「신시대의 난민 보호와 시민사회: 7 개국·지역의 NGO 의 시점에서」를 도쿄 타마치의 「여성과 일의 미래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미국의 난민 보호 전문가가 참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현황과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모리카와 히로시 (일본 복음루터교 사단 이사/사무국장 대행)씨와 반 메구미 (난민지원협회 지원사업부 팀 리더/법적지원담당)씨의 진행 하에 요한 셀스 UNHCR 주일 대표의 인사말로 막을 열었다. 셀스씨는 우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보호의 과제를 소개하고, 이어서 난민 신청자 수의 증가, 제 3 국 정착 프로그램, 무국적자 등의 상황에 대해서 유엔기관의 관점에서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한국의 황필규 변호사, 카나가와 대학교 법과 대학원의 아베 히로시 교수, 홍콩의 마크 다리 변호사가 각국의 난민 보호 정책의 발전에 대해 소개하고 난민 지원의 법제도의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오후의 패널 디스커션 I 에서는 호주 난민위원회의 타마라 도미셀 정책 디렉터, 난민지원협회의 이시카와 에리 사무국장, 한국 NGO 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IRC 태국지부의 크리스틴 패트리 부대표가 패널로 참가하고 아사히 신문의 미즈노 타카야키 논설위원이 모더레이터를 맡았다. 각 패널리스트는 난민협약 가입국의 난민 수용의 현황과 과제, 난민의 재정착을 위한 생활 지원 사례 등에 대해 발언했다.

패널디스커션II에서는, 말레이시아의 NGO 테나가니타의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프로그램 오피서, 태국의 방콕 난민 센터의 루피노 세바 프로그램 매니저,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의 브라이언 바버 사무국장, 재일 미국대사관 아담 저비노프로스 동아시아 난민조정관, 재일버마 난민인 탄원 재일버마시민 노동조합 회장이 패널로 참가하고, 모더레이터는 하와이 대학 정치학부의 페트리스 프라워즈 준교수가 맡았다. 우선 각 패널리스트가 난민협약 미가입국에 있어서의 난민보호의 과제를 소개했다. 연이은 질의응답 시간에는 각국의 정부와의 관계 구축, 일본의 제 3 국 정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끝으로, 호세이 대학 명예 교수이자 난민지원협회 상임고문인 혼마 히로시 교수의 폐회사가 있었다. 혼마 명예교수는 「더 나은 난민지원을 위한 각국의 여러 관계자들과의 교류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았다」며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시간의 심포지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여러 단체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어서 좋았다」, 「하루만의 행사로 하기에는 아깝다. 이틀간 실시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와 같은 참가자의 목소리도 있었다.



■ 내빈 인사

요한 셀스 UNHCR 주일사무소 대표

○ 본 심포지엄의 의의

아시아 태평양의 지역 수준에서 난민 보호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지금까지 별로 없었다. NGO 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 난민 신청자가 직면한 문제

자신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어느정도 정보를 입수할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UNHCR 과 NGO 에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보호시설에서의 장기적인 구금 또한 문제이다.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과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4 개국 난민협약 체결국 중 일본을 포함한 8 개국만이 난민인정절차를 두고 있다
- 각국의 난민인정절차의 효율성, 공정성, 난민협약의 해석, 지원체제, 의사결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난민 정의 해석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협약의 정의에 기반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일본의 상황

- 일본에서는 협약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적인 배려에 의한 체류자격의 부여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 년간 57 명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360 명의 인도적 지위자가 나왔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 난민인정자에게는 취업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어떻게 사회통합을 해 나갈 것인지가 과제이다. NGO 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 일본정부는 태국에서 30 명의 버마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적은 인원수이기는 하지만 아시아의 국가로서는 첫 시도이다. 금후 일본이 아시아 지역에서 난민 보호에 관해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난민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번의 시도가 성공하면 수용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 무국적자

- 일본은 무국적자에게 충분한 주위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무국적자가 난민협약에 기반한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커뮤니티 수준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기조연설

1. 「한국의 난민보호의 발전」

황필규, 한국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소속 변호사

○ 동아시아의 상황

- 동아시아가 보호하고 있는 난민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수에 머물고 있다.
- 동아시아는 난민의 대량 수용의 경험 없으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시키는 방식으로 난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한국, 일본, 홍콩의 과제

- 공통의 과제로는 비호 희망자가 취업할 수 없는 것, 사회적 지원의 부재, 난민 심사시간의 장기화, 법제도화된 지원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 일본에서는 많은 변호사가 난민 지원에 종사하고 있지만, 홍콩에서는 10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중에서도 난민문제를 전담하는 변호사는 거의 없다. 제도상 법률사안으로서의 취급도 어렵다.
- 한일 양국의 이의신청제도는 거의 유사하다. 일차심사의 불인정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일차 심사와 같은 기관 (한국: 법무부, 일본: 법무성) 이 이의 심사를 실시한다.

○ 한국의 난민 인정 제도

- 한국은 94년에 협약에 가입, 96년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 2개의 NGO가 난민 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지만, 난민케이스에 관련하고 있는 변호사의 수는 매우 적다.
- 한국에서는 비호 희망자의 동기를 추측하는 경우가 많아 심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난민신청자가 무기한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자 2000명 중 약 100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아직 1200명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페이스대로라면 현재 신청건수인 1200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 UNHCR도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의 투명성의 결여, 복잡한 프로세스, 엄격한 보호(구금)정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난민 보호에 대한 새로운 법안

변호사, NGO 관계자등이 작성한 법안을 국가인권포럼 회원인 2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했다. 새법안에는 현행의 출입국관리법에는 없었던 6개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①난민의 정의 ②Non-refoulement의 원칙 ③난민신청자 체류자격 ④난민/난민신청자의 최저한의 생활보장 ⑤정보 액세스 제공 ⑥난민의 권리를 인정 이 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이루어 내고 싶다.

2. 「일본에 있어서의 난민 보호의 발전」

아베 히로시 카나가와 대학 법과 대학원 교수

○ 일본의 난민 수용의 경위

일본은 정치적 이유로 인해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을 시작했다. 그 후, 82 년에 난민협약에의 가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 개정 입관법

2004 년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의해 「60 일 규칙」의 철폐, 「임시체류제도」의 신설, 「난민 심사 참고인」 제도 도입 등 난민 정책이 일부 개선되었다. 법개정의 배경으로는 「심양 사건」 (역주: 북한 난민이 심양의 일본의 총 영사관에 진입, 체포된 사건), 난민 지원에 관련하는 변호사의 증가, 재판에 있어서의 법해석의 발전을 들 수 있다.

○ 일본의 과제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인정자의 다수가 버마 국적이다. 한편, 우호국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관계국 출신의 난민은 인정 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쿠르드인은 아직 한 명도 인정된 바 없다. 중국, 북한 출신의 난민도 한명도 인정되지 않았다.

○ 법적 보호의 결여

- 난민 신청자는 구금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생활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난민지위 인정후에도 사회적인 지원 제도가 없고, 사회에의 통합도 여의치 않다. 이는 일본에서 국제인권법이 충분히 존중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2005 년 3 월, 출입국 관리 기본 계획이 발표되어 엄격한 국경 관리나 국가안보에의 우려가 난민 인정 절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 국내에서는 다문화주의를 증진시키고 국제적으로는 인도주의를 장려해야 한다. 자위대 파견도 인도주의 정책의 일환이지만, 난민수용도 인도주의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 난민보호는 국제적인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이다.
- 일본에서는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본래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의 상위에 자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한편, 일본에서는 출입국 관리에 관한 여러가지 법해석이 있다. 예를 들면, 1979 년에 체류자격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진다는 판결이 있어 많은 난민신청자가 법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 무국적의 문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무국적자인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 로힝가 난민이나 무국적 상태의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

.3. 「홍콩의 난민 보호 발전」

마크·다리반즈&다리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콩)

○ 홍콩의 난민의 상황

- 홍콩은 「법의 통치」라는 의미로는 중국 본토와는 다르다.
- 홍콩에는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는 법률은 있는데, 난민을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 홍콩의 난민이나 인권에 관한 법률은 비즈니스 관련 법률에 비해 저평가되어있다. 난민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변호사회에 가입이 가능하다.
- 난민법이 발달하지 않아 난민인정제도가 없고 난민의 무기한 수용도 가능하다.
- 이전에는 베트남 난민을 위한 제도가 있었지만 그 후 난민관련제도는 부재.



○ 고문방지협약

- 홍콩에는 난민 인정 제도가 없기때문에 난민 지원에 종사하는 변호사는 고문방지협약을 이용하고 있다.
- 2008 년 12 월, 홍콩의 고등법원은 고문방지협약의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부의 심사가 불공정하고 비합법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 지금까지 3000 건의 고문 관련 케이스가 있었고, 그 중 1500 건은 난민에 관한 케이스였다.
- 고문방지협약의 대상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4 년간에 100 회 이상 정부와 인터뷰를 했지만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 고문방지협약의 대상자 인정 절차에 신청한 사람들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공적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 난민 보호 제도의 필요성

- 변호사가 무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팔짱끼고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공적 법률 보조 제도가 필요하다.
- 특히, 정부는 난민 보호 제도를 구축해야 하며, 난민의 생활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 누구나 법적 원조를 받을수 있고,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번즈&다리 법률 사무소

우리 사무소는 4 명의 변호사와 4 명의 인턴이 있지만, 난민 지원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젊은 변호사를 위한 자리는 언제라도 준비되어 있다. 흥미가 있으면 참가를 바란다.

■ 패널디스커션 I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협약 가맹국에 있어서의 현상과 과제」

<패널리스트>

타마라 도미셀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위원회 정책 디렉터
이시카와 에리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이호택	국제 난민 지원 기독 NGO 피난처 대표
크리스틴 패트리	국제구제위원회(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 태국사무소 부대표

<모더레이터>

미즈노 타카아키	아사히 신문사 논설위원
----------	--------------

미즈노 : 이 패널디스커션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 미국의 난민 제도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 또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미 채용하고 있는 제3국 정착 제도로부터 일본과 한국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싶다.

1. 「오스트레일리아의 현상과 과제」

타마라·도미셀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위원회 정책 디렉터

○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징

오스트레일리아의 비호희망자의 처우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한편, 제3국 정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위원회(RCOA)의 개요

- RCOA 는 300 명의 (사람/단체) 회원이 있는 NGO. 주요 스태프는 4 명. 자금은 기부금이나 회비 등이다.
- 난민, 비호희망자, 피난민을 위한 재정착 지원, 어드보카시 활동, 여론의 환기나 매스컴의 관심을 높이는 활동등을 실시하고 있다.
- 주된 활동은 조사, 정책분석, 연수, 커뮤니티교육 등이다. 매년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인도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커뮤니티 회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참가에 대해 정부에게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목적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 난민이 오스트레일리아에 폭넓게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난민 환영 자치체 선언」을 각 자치체가 채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 전국의 회원간에 전화 회의나 디스커션·포럼을 개최하는 동시에, 정보 교환/어드보카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정부관료나 의원과의 대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주요 국제 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여러 NGO·국제기관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난민/인도주의 프로그램

- 오스트레일리아는 1954 년 「난민협약」에 가입해, 동의정서를 1973 년에 비준. 1901 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 73 만명의 난민이 정착했다.
- 제 3 국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6000 명 규모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중 12%는 위험에 처한 여성(women at risk)이다.
- 그 외, 오스트레일리아에 보증인이 있는 사람을 위한 특별 인도 프로그램이 있어, 이 경우 보증인이 초기단계부터 생활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가족재결합을 포함하여 연간 할당수는 7,750 명이다.
- 다만, 제 3 국정착에 의해 수용하는 난민의 수에 따라 특별 인도 프로그램의 대상자수 (협약난민의 수) 를 결정하고 있어 RCOA 는 이 방식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 수용하는 난민의 인원수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 균등하게 할당되고 있다.
- 재정착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4 개년 계획이 도입되어 정부의 장기적인 관여가 가능해졌다

○ RCOA 의 재정착 프로그램

- RCOA 는 1979 년부터 재정착 프로그램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 현재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커뮤니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다문화주의의 원칙에 기반한다.
- 도착전 5 일간의 문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6 개월간의 정착 전략 집중 프로그램 (공항 송영, 집 찾기, 카운셀링, 영어학습 등), 5 년간의 장기적인 정착지원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즈노 : 오스트레일리아는 재정착난민의 수, 「난민 환영 자치체 선언」, 재정착자에 대한 장기적인 코미트먼트(commitment) 등의 면에서 볼때 난민보호의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일본 난민보호의 현황과 과제」

이시카와 에리 난민지원협회 사무국장

○ 난민지원협회(JAR)의 개요

- 일본에 있는 난민이 먹거나 자거나 일하거나 하는 당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 활동의 내용은 세개의 주요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난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지원(법률이나 생활의 지원), ② 보다 좋은 난민 제도 구축을 위한 조사, 정보 수집, 정책 제언 ③심포지엄, 어시스턴트 양성 강좌, 홍보 등 관련 정보 발신.
- 1999 년 7 월 설립. 대표이사는 메이지 대학 이사 나카무라 요시유키. 2007 년도의 예산은 6,500 만엔. 주요 자금원은 UNHCR, 민간재단,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등.

○ 일본의 난민 수용의 역사

- 일본은, 1978 년에 인도차이나 난민의 수용을 결정. 그 후, 11,000 명을 수용하였다.
- 1981 년에 난민협약에 가입, 1982 년부터 제도를 정비,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에 기반하여 난민 인정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심사 수속을 한다. 작년말까지의 신청자는 약 7,000 명, 그 중 인정자가 500 명이며, 인도적 배려에 의한 제류 허가자(이른바 준난민)는 882 명이다.
- 내년부터 시험적으로 제 3 국 정착(국외의 난민캠프 등에 살고 있는 난민을 일본으로 재정착)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 명의 난민을 받아들일것을 작년말 내각회의에서 결정.

○ 일본의 난민현황

- 최근 난민, 준난민 인정건수가 2 배 정도 증가했다. 문제는 심사기간이 평균 2 년 길게는 9년까지 걸리며 심사기간동안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하며 구금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난민인정이 거부되었을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최종 결정은 1 차 심사 기관과 동일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어있다.
- 심사기간중의 생활 지원이 한정되어 있으며, 취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공적 지원(보호비)은 제도상 3~4 개월의 기간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8~9 개월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의 심사기간인 2 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난민 신청자를 위한 공적 지원의 고갈

최근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여 공적지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금년 4 월부터 공적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 지원금을 받고 있던 150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은 우리의 사무소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7 개의 NGO 단체들이 예산을 관할하고 있는 외무성에 예산 확보의 신청을 실시했다.
- 난민이 최소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긴급 모금 실시 중.
- 민간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담당할 여력은 없으므로 외무성이나 외무성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아시아 복지 교육 재단 난민 사업 본부의 예산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그 외에 관계자와도 의논중이다. 오늘 내일의 상황이 급한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모금중이다.
-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과 쉼터가 부족하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 비누, 칫솔, 속옷 타월 등을 모집하고 있다. 심포지엄의 참가자 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미즈노 : 일본은 제도는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지만, 난민 신청자에게 취업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공적지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의식주 등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일본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3. 「한국 난민의 현황과 과제」

이호택 한국 NGO 피난처 대표

○ 한국의 난민 지원 NGO

- 한국에는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NGO 가 두곳, 변호사 단체가 두곳이 있으며, 각 단체에 2 명의 직원이 있는 정도이다.
- 피난처는 지난 10 년간 난민지원활동을 해왔다. 또한, 최근 난민인권센터 (Nancen)이라는 단체가 새롭게 활동을 시작했다.



○ 한국의 난민의 상황

- 작년말까지의 난민신청자 2,168 명으로 이 수지는 협약에 가입한 후 지난 15 년간의 누계이다. 그중 인정건수는 약 100 건이다.
- 인도적 지위의 인정자는 71 명이며 불인정자는 약 400 명.
- 인정률은 17.2% 정도로 그중 법무부에서 인정한 케이스는 8.4%이다. 3.1%는 재판을 통해 인정 되었다. 가족 재결합의 비율이 5.7%이다.
- 주요 출신국은 네팔, 중국, 미얀마,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와르, 이디오피아, 이란 등이다.

○ 한국의 난민 제도

- 난민협약에 가입한것은 1992 년이며, 2000 년에 UNHCR 집행위원회의 멤버가 되었다.
- 출입국 관리법에 난민 관련 조항은 12 항목 뿐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다. 또한, 난민인정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어, 평균 20 개월이 걸린다. 5 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다.
- 난민신청자의 취업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로부터의 지원금도 없다.
- 한국에는 제 3 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한 난민수용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 공항이나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도 불가능하다. 난민신청은 입국으로부터 1 년이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자의 반수 이상이 1 년이상 경과한 후에 신청하고 있다.
-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G1 비자(일시 체류 허가용의 비자)가 교부된다.
-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인정 수속이 끝날 때까지 강제 퇴거가 실행 유예된다.

○ 문제점

-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진술서 제출을 요구하고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고 즉결심사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통역인의 자질의 문제
- 현재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비영어권 출신이나 면담시 사용한 언어는 66%가 영어, 20%가 한국어이고, 70%가량이 통역 없이 인터뷰하고 있음.

- 본인 작성한 서류 이외의 열람은 허가되지 않는다.

○ 출입국 관리법 개정

- 최근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되어 인도적인 고려에 의한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자, 그외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의료지원,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하는 난민지원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미즈노 : 한국은 일본과 공통점도 많지만, 제 3 국 정착 프로그램이 없는 한편,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 허가가 부여되고 난민 지원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일본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다. 향후, 한일의 난민지원단체의 교류를 통해 함께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해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미국 난민 보호 현황과 과제」

크리스틴 패트리 국제 구제 위원회(IRC) 태국사무소 부대표

○ IRC 의 개요

IRC 는, 40 개국 이상의 난민 지원, 인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위탁사업으로 전미 23 개 도시에서 재정착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태국의 상황

- 태국에는 약 14 만명의 난민이 있다. 한편, 난민으로서 인정되지 않은 난민들도 수만명 이상 있다.
- 태국정부는 난민 인정을 거부하며 난민을 불법 이민자라고 통칭하고 있다.

○ 미국의 재정착 프로그램

- 미국은 매년 그해의 연간 난민 수용 인원을 결정한다. 2009 년에는 80000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 미국에는 9 개의 난민 지원 NGO 가 있고 그중에 IRC 는 재정착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NGO 이다.
- IRC 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요청에 의해 1933 년에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는 나치스 정권에서 달아난 유대인을 위한 재정착 프로그램에 종사했다.
- 재정착난민은 입국 직후부터 취업이 가능하고 5 년이상 거주하고 일정 수속을 밟으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IRC 는 작년 한해 9,200 명 이상의 난민의 재정착을 지원했다.
- 미국에서는 취업 등을 통해 난민을 자립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미국 도착 후 2~3 주안에 직장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IRC 는 취업을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IRC 는 난민이 공항에 도착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원한다.
-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문화 오리엔테이션, 영어교육, 고등교육기관에의 입학 지원, 자격 취득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사회 통합 지원, 법적 지원, 카운셀링 등이 있다.
- Asylee (비호 인정자 : 미국 상륙시 또는 미국 국내에서 난민신청을 하여 인정받은자. 협약 난민) 나 인신매매의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다.

5. 질의응답

미즈노 :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영향으로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가.

도미셀 : 난민과 이민자가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의 개호 분야에서의 난민의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이시카와 : 일본의 난민 수용에 대한 비판 여론은 높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이민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이민국가가 되어 하는가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지만 제대로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역 사회에 외국인을 받아들이면 반발이 크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받을때도 있지만, 사회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600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외국인과의 접촉이 많을수록 외국인에게 좋은 감정을 받는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다. 사회학에서는 접촉가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NGO 로서 접촉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나가고싶다.

이 :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라도 외국인 수용에 대한 반발은 존재한다. 나는 한국이 세계 10 대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 인원은 소수인 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 한국에는 대량의 난민이 유입되는 국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난민은 한사람씩 오는데 그중에는 유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난민은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신의 축복이다.

패트리 : 구매나 소비를 통해 난민이 사회에 경제적 공헌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난민은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이며 그 사실을 인식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미즈노 : 어떻게 어학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 적정 기간, 달성 목표는?

도미셀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6 개월동안 풀 타임으로 어학 교실을 열고 있다. 단지,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커리큘럼은 취업을 위한 과정과 일상회화 과정의 두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시카와 : 일본에서는 긴 심사 기간을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은 후에야 일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심사기간중에 생활속에서 조금씩 회화 중심의 일본어를 스스로 배워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제공하는 초급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에도 중상급 과정을 공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독학으로 공부하여 통역으로 활약하는 사람도 있다.

이 : 한국에서는 난민을 위한 공적인 언어교육은 없다. 6 개월의 한국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패트리 : 미국에서는 5 년까지 무료로 영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나 실제 1 년정도의 연수 후에는 일이 바빠서 참가하기 힘들게 되므로, 자원봉사 가정교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난민의 가정을 방문하는 어학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미즈노 : 다문화 공생은 난민 수용에 있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도미셀 : 다문화 공생의 원칙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국민의 반수가 자기 자신 혹은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난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있어, 오랜 세월을 걸쳐 국책으로서 다문화 공생을 목표로 해 왔다.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서는 다문화 공생이 사회를 풍부하게 한다는 일념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흐름의 일환으로서 난민수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미즈노 :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등과 시민사회와는 관계는 어떠한가?

패트리 : 현재의 불황하에서 많은 미국인이 실직하고 있어 난민의 취업에 대해서는 비난이 강하다. 그러나 보통 미국인의 일자리는, 난민의 일자리와는 다르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항상 부족한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난민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주와는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난민의 노동력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즈노 : 일본에서는 구금된 난민신청자의 임시방면을 위해서는 고액의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타국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는가?

도미셀 :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신청자 구금의 역사는 길다. 비자없이 입국했을 경우, 불법체류를 이유로 감금해왔는데, 작년 구금의 방침을 변경하는 정책을 발표해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장기 구금하는 것의 대한 논쟁이 있어, 인도적인 입장이나 국제적인 관점으로부터, 구금에 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 지원도 없이 방면되었을 경우, 국민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의 구금 시설 대신 지역 커뮤니티가 난민 신청자를 받아들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위험인물이거나 취업허가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취업한 케이스들은 기간을 한정하여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시카와 : 일본에서는 난민신청자의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지만, 1 년정도가 지나면

임시방면되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은 0~300 만엔이며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직권으로 임시방면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는 제삼자자에 의한 외국인 보호시설의 모니터링이 부재했으나 이번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안에 「외국인 보호 시설등의 시찰 위원회」의 설치 제안되었다. 구금은 난민신청자에게 심리적인 압력을 가하므로, 예외적이며 한정적으로 구금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NGO 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커뮤니티로의 대체 수용안에 주목하고 있다. 쉼터를 다수 확보하면, 정부측도 임시방면을 허가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므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싶다.

이 : 한국에서는 난민 신청자의 구금은 20명 미만으로 많은 수는 아니다. 대부분은 불인정 결과 후에 구금된 경우이지만 무허가 취업이나 구금후에 난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금이 장기화되어, 3년간 구금 당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다.

패트리 : 미국에서 구금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18 세 이하의 미성년의 구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며, 난민 신청이 불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법적 대리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즈노 :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처우는 어떠한가?

이 : 헌법상 탈북자도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과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15,000 명의 새터민이 한국 시민으로서 한국에 살고 있다.

미즈노 : 한국의 무국적자를 위한 지원 활동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한국에 오는 무국적자는 무국적자 협약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국의 무국적자의 예를 들자면 위장 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그것이 발각되었지만 여권이 없어 귀국할 수 없는 케이스 등이 있다. 이러한 케이스는 중국인에게 많다. 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무국적자 문제를 취급하는 전문 기관은 없기 때문에 현재 설치를 검토 중 이다.

미즈노 : 서로에게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미셀 : 일본에서는 제 3 국 정착 프로그램에 의한 난민 수용의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고 들었다. 호주에도 현재 진행중인 시범사업이 있다. 난민신청자를 위한 적절한 법적 조언, 생활 지원, 귀국을 위한 카운셀링 등을 제공하는것인데 혹시 절차가 종료되어 난민신청자가 귀국을 결정할 경우 그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Case Management Principle」에 의해 난민인정이 거부된 신청자의 재정착이나 귀국을 지원한다. 일본의 시범 사업의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시카와 : 난민 재정착의 경우 오스트레일리아는 국가별로 균등하게 할당된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얀마 이외의 나라에서도 난민 수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과는 여러 공통점이 있기때문에 서로 교류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싶다. 피난처는 한류스타, IRC 는 조지 클루니가 친선대사이므로 JAR 로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참가시키고 싶다.

이 :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난민 보호의 면에서는 「선진국」이지만, 양국은 「이민

대국」이기도 하다. 그 의미에서는 한국과는 다르다. 그러나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고 있고 이민국가로 변모하고 있다. 종래의 이민국가의 경험에서 배울점이 많다. 일본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일본에 비해 10 년이상 늦게 난민수용을 시작했으며 수용 인원도 현재까지는 5 분에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페트리 : 난민의 권리나 인도주의의 관점에서 미국과 한, 일, 호주의 NGO 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단, 정부의 방침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본의 재정착 프로그램의 시도는 적은 인원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첫걸음이다. 교류를 통해 서로 배워나가야 한다. 미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을 거쳐 형성된 것이며 일본은 일본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즈노 : 일본의 재정착 제도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제부터 어떻게 성공, 발전시켜 나갈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발이나 고용의 문제등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도 경험해온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차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여러 조언을 주셨으면 좋겠다.

■ 패널디스커션 II

「아시아에 있어서의 난민 보호에 향한 새로운 도전」

<패널리스트>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테나가니타 프로그램 오피서 (말레이시아 NGO)
루피노 세바	방콕 난민 센터 프로그램·매니저 (태국 NGO)
브라이언 바버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 사무국장
아담 저비노프로스	재 태국 미국 대사관 동아시아 난민 조정관
틴원	재일 버마 시민 노동조합 회장·버마 난민

<모더레이터>

패트리스 프라워즈 하와이 대학 정치학부 준교수

Flowers : 패널 디스커션 II 에서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들의 난민 지원 활동의 실태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지만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난민 현황과 과제」

카트리나 J 마리아모브 테나가니타 프로그램 오피서 (말레이시아 NGO)

○ 말레이시아의 난민의 상황

- 말레이시아에서는 UNHCR 이 난민신청자 등록 및 난민인정을 실시하고 있어 2009 년 4 월 현재, 약 5 만명의 난민신청자가 등록하고 있다. 버마(미얀마) 출신의 난민이 가장 많으며 약 10 만명이 미등록 상태이다.
- 말레이시아는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난민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체류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가 난민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버마 (미얀마) 로부터 대량 난민이 유입되는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다만, 베트남 난민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재정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가 난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난민들은 법적 지위가 없으며 인권도 존중받지 못한다.
- 난민 아이들은 출생 증명서도 받지 못하며 교육 기회도 누리지 못한다.
- 취업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궁핍한 환경에서 일해야 하며 착취도 빈번하다.
- 사법기관에의 접근도 제한 되어 있다.
- 불법 체류 외국인은 범죄자 취급되어 폭력이나 학대의 위험에 놓여있다.
- 정부는 난민을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버마 난민의 사례

지난 달 구금중이던 버마 난민 두명이 사망했다. 말레이시아 국내의 동물에게서의 감염으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관은 해외에서 전염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금시설은 불결하고, 혼잡하며 학대도 일어나고 있다. 무기한 구금도 있으며 강제송환되는 경우에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 국제사회의 반응

지난 달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실시되어 많은 나라들이 말레이시아의 인권상황을 비난 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UNHCR의 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점점 일반인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책변화의 조짐은 없으므로 너무 과한 기대는 금물이다.

○ 변호사에 의한 정책 제언

최근 시민단체와 변호사 협회가 난민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정부에 제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선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태국의 난민 현황과 과제」

루피노 세바 방콕난민센터 프로그램·매니저 (태국 NGO)

○ 태국의 난민 현황

- 태국에는 라오스, 버마, 캄보디아로부터의 약 200 만명의 난민이 있다. 구금되어 있는 난민도 많이 있다.
- 난민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50 만명이다. 태국과 버마의 국경에 9 개의 난민 캠프가 있다. 난민 캠프에 있는 난민은 법적인 지위는 있지만, 자유로운 이동이 규제되고 있으며 고등 교육을 받을 권리도 없다.
- 도심난민 (Urban refugee)도 많이 있으나 태국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콕난민센터는 그러한 도심난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UNHCR 에 의해 난민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한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태국에서는 난민인정업무를 UNHCR 이 수행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도심난민은 등록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8 년 4 월 시점에 1,302 명이 등록되어 있다.
- 방콕난민센터는, 주로 도심 난민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호 희망자에의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른 NGO 나 교회도 비호희망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한정되어 있다.
- 도심난민 및 비호희망자는 병원에 갈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방콕 난민 센터는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생활 지원으로는 취약성이 높은지를 평가한 후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식량 배급도 실시하고 있다.
- Learning Center 센터를 설립해 직업 훈련, 성폭력예방교육, HIV/AIDS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심리치료도 제공하고 있다.
- 예산의 제약등의 문제로 난민지원업무가 수월하지 않다.



3. 「홍콩의 난민 현황과 과제」

브라이언 바버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 사무국장

○ 홍콩의 난민 현황

- 중국은 1951 년 난민협약에 가입했으나 홍콩에는 난민인정제도가 없음.
- UNHCR 이 난민인정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고문방지협약을 활용하여 난민의 송환을 막고 있다. 난민인정절차의 장기화가 문제이지만 개선되고 있고, 인터뷰시 법적대리인의 동석이 가능하다.
- 홍콩의 난민신청절차에는 여러단체들이 관계하고 있으나 코디네이션이 결여되어 있다. 관련 단체간의 차도 크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시민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 「아시아 태평양 난민 인권 네트워크」

-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난민 인권 네트워크」의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어 지역 수준에서 난민 문제를 생각할 기회가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계자가 한곳에 모이는 것은 처음으로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성명 발표, UNHCR 과 정부를 상대로한 공동 어드보카시 활동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와 UNHCR 와 NGO 의 협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콩은 이 부분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아직도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 홍콩의 난민 보호를 향한 과제

- 홍콩은 7 개의 인권협약을 비준하고 있고, 각각의 협약의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보고 하고 있다. 홍콩의 법원은 난민협약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협약에 근거하여 정부에 권고안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홍콩 난민 어드바이스 센터는 난민에게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에 관한 법률은 복잡하고, 난민의 정의의 해석도 어렵다.
- 일반 시민은 난민의 정의를 알지 못한다. 예를 들면, 난민을 지진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도 있다. 난민인정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난민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적인 지식없이 인정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많은 난민들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일부러 거짓을 말하기도 한다.
- 법적인 지원이 불가결하다. 일반적인 법적 지원과 아울러, 케이스 별로 맞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법적 대리인의 제공도 중요하다.
- 현재 홍콩에는 5 개의 법률사무소가 Probono (전문가에 의한 공익 활동)에 의한 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트라우마가 있는 난민, 복잡한 케이스, 소송을 할 수 없는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UNHCR 에서는 10 명중 9 명의 난민 신청이 거부되고 있다.

. 4. 「미국 정부의 난민 보호 정책」

아담 저비노프로스 재태국 미국 대사관 동아시아 난민 조정관

○ 국무성의 소개

- 재태국 미국대사관의 동아시아 난민조정관으로서 국무성의 인구/난민/이민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동아시아에서는 난민의 보호, 모니터링, 건강 관리나 난민수용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



○ 동남아시아의 과제

- 심사 기간의 장기화, 주거, 물자 제공의 결여, 정치적 문제 등이 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2 개국만이 난민 협약 비준국이다.
- 난민에 대한 정책 제언이 어렵다. UNHCR 등의 국제기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난민이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나 정부의 공무원에게 착취당하기도 한다.
-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량난민은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며,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지어 진다. 지역 시민이나 지역 정부를 설득하여 난민을 장기적으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미국 대사관의 활동

- 미국대사관은, 불법 체류 상태의 난민 및 무국적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정책 제언, 자금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다.
- 태국에 있는 카렌족(버마 소수 민족) 난민을 포함한 수십만명의 난민에 대해서는 학자, 정치가, NGO, 태국 시민의 협력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었다.
- 특히, 시민사회는 로비 활동을 통해 난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일본도 배울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 미국 본토의 난민수용

미국 본토의 난민수용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관계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관계자들이 난민의 보금자리를 함께 마련한다. 또, 시민단체들은 현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난민을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인 지원 등 여러가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재정착의 최선의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5. 「버마 난민의 현상」

턴원 재일 버마 시민 노동조합 회장/ 버마 난민

○ 버마 난민의 상황

- 버마는 아시아의 쌀창고라고 불릴만큼 부유했으나 1962 년 군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점점 가난해져 지금은 아시아의 최빈곤국의 하나로 전락했다.
- 버마는 세계 최대 난민 출신국중 하나로, 군사정권의 박해를 피해 약 50 만명의 난민이 인접국에 있다.

· 버마는 다민족 국가로 130 이상의 민족이 있다.

· 산족, 카렌족, 몬족 등은 인접국가에서 자치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 이웃나라 인도에는 약 5 만명의 친족이 있지만 인도 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에는, 약 12 만명의 로힝가족이 있다. 또, 말레이시아에도 친족이나 라카인족 등이 많이 있다. 이러한 인접국에 비해 일본이나 한국에 있는 버마 난민의 수는 매우 적다.



· 태국과 버마의 국경 부근에는 약 14 만명의 버마 난민이 난민캠프에서 지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카렌족으로 20 년 이상 캠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 한편 친족의 상당수는 난민 캠프에 머물지않고 인도나 말레이시아의 도시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인도의 동부에도 약 6 만명의 친족이 살고 있다.

· 로힝가 난민은 무국적 상태로 다른 버마 난민에 비해 특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 수용국은 UNHCR 나 그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 로힝가족은 버마 서부의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부근의 아라칸주 출신이다. 이들은 1992 년 버마 국적을 박탈당해, 아라칸주 밖으로 이주하거나 결혼을 하는것등도 허락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도 없다. 아라칸주 인권 상황은 버마에서도 최악으로 강제 노동이나 임의적 체포등이 횡행하고 있다.

· 아웅산 수지 여사는, 「버마는 파시스트의 디즈니랜드이며 난민캠프는 마치 사람들이 동물원에 갇힌 것과 같다」 라고 말한바 있다.

6. 모데레이터의 코멘트

페트리스 프라워즈 하와이 대학 정치학부
준교수

·난민의 괴로움을 경감하는 동시에 난민을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단지 경제적으로 난민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단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의 네트워크나 난민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패널 디스커션에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학자, 정치가, 매스컴 등이 난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난민이 국가의 위협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논의가 한정될 수 밖에 없다. 난민을 사회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 인식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적인 난민정책이 중요하다. 재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도 있었지만 이미 확립된 제도가 있는 수용국의 경우에도 아직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다고 본다.

7. 질의응답

프라워즈 : 난민 수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코멘트를 부탁한다.

마리아모브 :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나라, 국회, 주의회의 여야 의원을 대상으로 움직이고 있다. 현지 주민과 난민의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다.

세바 : 태국에서는 비호희망자나 난민신청자는 상시 체포, 구금의 위험에 놓여있다. BRC는 UNHCR와 협력하여 체포와 구금에 대해 기록하고,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활동의 결과, 체포와 구금이 감소하고 있다.

바버 : 홍콩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비공식인 회합을 통해 의견을 교환 하고 있다. 국제인권 기관이나 지역단체와 협력하거나 미디어를 통해 여론 조성을 하기도 한다.

저비노프로스 : 미국내의 NGO와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재정착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틴원 : 일본에서는 불황으로 비정규 외국인 노동자의 실직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공적기관에 상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실업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정책은 인종차별적이다. 일본계 브라질인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난민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일본계 브라질인에게는 귀국 지원 등이 있지만, 귀국할 수 없는 난민에 대한 지원은 없다.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도 크다.



일본에서는 난민을 위한 효율적인 지역 통합 프로그램이 없다. 현재 일본에 있는 버마 난민은 난민 신청을 통해 인정된 사람들이며, 재정착 난민이 아니다. 제 3 국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오는 난민들과는 상황이 다르다. 일본에 있는 버마난민의 상당수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 활동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어떻게 정착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프라워즈 : 난민이 출신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할 경우 각 단체는 어떠한 지원을 제공하는가?

세바 : 태국에서 난민의 귀국 준비는 UNHCR이 담당한다. 귀국비용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지만, 부족한 경우 자금 원조를 실시하기도 한다. 도심 난민이 귀국을 희망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건 뿐이다. 이민국에서 임의로 귀환시키는 경우도 있다.

마리아모브 : 테나가니타는 버마 난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가족의 사정으로 인해 귀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본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프라워즈 : 홍콩에서의 체류 할수 없는 난민들은 어디로 가는가.

바버 : UNHCR 가 인정한 난민은 UNHCR 에 재정착 프로그램 참가를 신청하고 수속을 받아야 한다.

프라워즈 : 동아시아 지역 수준에서의 난민 보호에 대한 움직임은 있는가.

저비노프로스 : 난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에는 난민문제에 대한 지역단위의 협의회가 있으며 정부간 각료회의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버마 난민 문제가 화두로, 방글라데시 정부나 태국 정부는 버마 난민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버마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간의 협의는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흐름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난민의 의견도 직접 반영되지 않고 있다.

프라워즈 : 각 단체에 지금 무엇이 제일 필요한가? 세가지 예를 부탁한다.

바버 : ①자금 ②협력 파트너 세번째는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

세바 : ①자금 ②커뮤니티 서포트 (지역 주민들의 이해) ③ NGO, 현지 주민, 정부와의 제휴.

마리아모브 : ① 난민 문제에 대한 의식 향상 ② 언론의 자유 (말레이시아는 언론의 통제가 엄격하다) ③정권 교체

틴윈 : ①군사 정권이 교체되면 많은 버마인은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②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민 발생의 이유를 해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③ 버마군사정권에의 원조의 중단.

프라워즈 : 일본 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

틴윈 : 아무것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편이 좋다.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의식이 높은 국회 의원들도 있지만 난민 문제는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50 년 후, 100 년 후를 보는 장기적인 시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난민이나 이민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일본은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다.

프라워즈 : 인신매매에 대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마리아모브 : 말레이시아의 인신매매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행해 말레이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최근 인신매매는 주목받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전보다 난민의 송환에 신중해졌다. 이것은 반가운 일이다. 테나가니타는 심리적인 케어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난민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

프라워즈 : 틴원씨의 활동을 소개해달라.

틴원 : 전국노동조합이나 JAM (Japanese Association of Metal, Machinery and Manufacturing Workers : 기계 금속산업 노동조합)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첫째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활동이다. 버마가 민주화 되면 조국에서 이 활동의 경험을 살리고 싶다. 버마에서는 노동의 착취가 만연하므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현재는 일본에서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프라워즈 : 이 패널 디스커션을 통해서 국제법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민 협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NGO 의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법은 난민보호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폐회사

혼마 히로시 호세이대학 명예교수/난민지원협회 상임고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로부터 몹시 귀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하면서 효과적인 난민 보호를 위해 여러 관계자와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인식했다.

셀스 UNHCR 주일 사무소 대표는 일본의 현상에 초점을 두면서 난민보호의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아베 교수는 일본이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난민보호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과거 인도차이나 난민수용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내년부터 시작하는 제 3 국정착은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원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향후 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는 정부의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정착의 경험에 대한 소개는 좋은 참고가 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보다 한발 앞서 난민인정제도를 확립했지만 일본의 제도는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번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은 큰 진전이며 일본에 있어서도 좋은 자극이 될것이다. 금후 양국에서 인권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개선하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먼저 정책 제언을 해야 한다. 일반 시민 여러분도 좀더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난민협약 미가입국의 문제, 난민보호를 위한 각국의 역할 분담, 난민 발생의 원인, 대량 난민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연대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지금부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